



# 광주·전남 유통업계는 벌써 설



광주지역 유통업계가 설 연휴를 3주가량 앞두고 예약판매 등 본격적인 설 마케팅에 돌입했다.

28일 광주지역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 따르면 설 연휴를 3주가량 앞두고 있지만 각 유통업체별로 설 선물세트를 마련, 고객초청 품평회를 갖고 사전예약을 통해 정상가보다 싸게 파는 등 고객잡기에 나섰다. 유통업체들은 특히 올해는 선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할인점들은 한과 등 저가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한 반면 백화점들은 중저가상품과 함께 와인이나 수입식품 등 고가 선물세트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다.

## 사전예약 할인판매·무료 배송 등 고객잡기 마케팅 돌입

지난 15일부터 선물 예약판매에 들어간 광주신세계는 다음달 4일까지 품목별 10~20% 할인된 가격에 주문을 받고있다. 다음달 2일부터는 매장에 선물세트를 진열하고 7일부터는 전국 배송망을 갖춘 세트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무료 배송을 시작한다. 광주신세계는 고가상품인 '5 스타' 품목을 자연산 활전복 등 11개로 늘리고 물량도 지난해 추석보다 2배 이상 늘렸다. 흑산홍어세트 등 지역내 명품 선물을 염선에 만든 '내고향 미각기프트'도 새로 선보이고 있다.

반면 5~15만원대의 실속 선물세트도 전년 대비 20%가량 늘렸고 10~15% 저렴한 기업단체 선물용 기획세트도 내놓았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선물 예약 판매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사전예약을 받아 갈비는 5%, 정육과 청과는 10%, 꿀 등 건강식품은 20% 할인혜택을 주고있다. 5일부터는 '설 선물 큰잔치' 행사를 열고 지난 25일 품평회에서 선보인 선물세트를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다음달 1일까지 예약판매를 받기로 하고 대상

품목을 지난해보다 200여개 늘린 650여개로 잡았다. 5일부터 17일까지는 '설날 선물 종합전'을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서 프리미엄 꿀비세트(200만원)와 자연송이 순수향(45만원) 등 8개 품목의 명품세트와 '영양어란', 전통 수제녹차인 '명차입동' 등을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또 받는 사람이 선물을 선택할수 있는 '마이 초이스 킷 프트'라는 이름의 역사지형 선물세트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있다. 할인점들도 다양한 선물세트를 마련하고 설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롯데마트 월드컵들은 개점효과를 설 연휴까지 이어간다는 전략아래 실속형 선물세트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박마트는 사과, 딸치세트, 올리브유를 타깃 상품으로 정해 고객 잡기에 나선 계획이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웰빙 트렌드의 지속적인 강세속에 와인과 수입식품 선물세트와 함께 정육·청과 등 전통적인 선물세트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저가 선물세트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있다. 할인점들도 다양한 선물세트를 마련하고 설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

## 수출 中企 발목잡는 비관세 장벽

### 中 강제인증제·EU 환경규제 등 시장 진입 막아

#### 코트라, 15개국 현황분석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인허관 관세를 대신해 등장한 비관세장벽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가 중소기업의 15개 주요수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총 261건의 비관세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리별로는 중국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EU)이 30건, 미국과 일본이 각각 27건, 브라질 7건순이다. 유형별로는 기술장벽이 87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고 수입허가 68건, 통관절차 39건 등이었다.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중국강제인증(CCC)제도, 전자제품 오염물질관리제도, 자국부품 사용 장려, 통관지 제

한으로 인한 통관 지연 등이 대표적이었다.

EU는 CE마크, 유독물질사용금지 지침(RoHS)·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등 환경규제, EU 회원국별 상이한 의류라벨제도 및 통관사무처리,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됐다. 미국은 안전인증제도, 바이오 테러리즘 법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 차별적 물품취급수수료, 섬유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됐다.

일본은 저가적 요구, 반품점업 점가 등의 상관행, 가전제품재활용제도, 한국산 소주 규정분류, 국제기준보다 높은 식품첨가제 허용기준 등이, 브라질은 국제표준과 상이한 강제인증제도, 과다한 제품정보 공개요구, 최저가격제도 등이 우리기업의 시장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조사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한국 과학기술 혁신역량 OECD 30개국 중 12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12위에 랭크됐다. 과학기술부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수준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평가는 혁신자원, 혁신활동, 혁신성과, 혁신환경, 혁신성과 등 5개 부문의 14개 항목, 31개 세부지표로 이뤄진 평가지표에 따라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결과, 미국이 단연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일본, 핀란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덴마크, 영국 등의 순이었다. 이번 평가에서 영국에 이어 12위에 오른 우리나라는 혁신활동과 환경부문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혁신 자원, 혁신 과정, 혁신 성과 부문의 역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혁신 지원제도 정비, 정보통신 및 사회기반 시설 등 물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빠르게 성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연구기관 등의 혁신역량 제고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주그룹 임원·팀장 목표관리 리더십 교육. 대주그룹(회장 허재호)은 지난 18일부터 11일간 황평 다이너스티CC 세미나실에서 그룹 산하 16개 계열사의 임원 및 팀장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5차례 걸쳐 '성과혁신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 28일 대주건설, 대한페이퍼, 광주일보사 등 임직원들이 '목표관리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관세 고액 체납자도 명단 공개

### 체납액 10억원 이상 등 대상자 올 8월 중 공표

국세 등에 이어 관세(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 포함)도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는 체납자는 올해부터 명단이 공개된다. 관세청은 올해 도입할 관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제 대상자가 개인 10명, 법인 16명 등 2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법인 1천5억원, 개인 285억원 등 총 1천291억원인 것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

다. 이들은 1월 1일 현재 관세와 관세청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체납액이 10억원이상이면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다. 관세청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이들 중 명단 공개자를 최종 확정, 오는 8월중 공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4월부터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남광주농협, 지난해 여수신 1조 2,700만원

남광주농협(조합장 최종섭)이 지난해 여수신 분야에서 1조2천700만원, 상호금융대출금 6천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남광주농협은 조합원 난방비로 3억3천300만원, 건강유지비로 4억9천900만원, 조합원 자녀장학금 5천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농촌사랑운동 확산을 위해 들-

침봉사를 매주 목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조합원 116명을 대상으로 18주에 걸쳐 계절대학을 운영해왔다. 최종섭 조합장은 "지난해 70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을 내 8억5천만원의 출자배당과 8억7천만원의 이용고 배당, 25억8천400만원의 사업준비금 적립 등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창조·디지털 경영으로 시장 주도

### 보해, 올 목표달성 결의대회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는 지난 27일 장성공장에서 올해 경영방침 및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2007년도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임현우 부사장을 비롯해 과장급 이

상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각 부서별 목표달성 방안 발표 및 결의에 이어 지난해 영업부문 목표달성 우수지점 표창이 실시됐다. 보해는 2007년 경영방침을 '창조경영'과 '디지털 경영'으로 정하고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디자인, 마케팅, 창조적 인재 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창조적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매진하기로 했다. 또 한층 치열해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밀착 마케팅 활동과 사회공헌활동,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북반주와 매출 순, 앞세우 수출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중소에 수출보험료 1억 2,000만원 지원

### 전남도, 업체당 최고 400만원

전남도는 올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 1억2천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장려를 위해 지난해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시장개척·농수산물수출·수출보증·환변동보험 등 5개 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에 대해 업체당 연간 최고 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월 수출분부터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겼고 오는 12월까지 계속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58개 업체에 모두 9천4백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 희망 업체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수출보험공사 광주지사'(062-226-4820)로 신청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이태리가구 전문점' (The 100% Made in Italy). Features the logo '홍 스키이스'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wangju branch: 광주광역시 동구 장영로14길 10 (구도량동) 홍 스키이스 본점 062)225-7567.

Advertisement for 'Sens-Mo' featuring a man in a suit. Text includes '만민안을 위한 가발' (Wigs for everyone's peace of mind) and 'Sens-Mo' logo. Contact information: 062)678-3545, 062)452-3545. Location: 위치: 동아병원과 원광대병원 사이.